

3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부산아시아게임에서 많은 불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진치상 차리기에서 나서면서 부산 불심이 후끈 달아올랐다. 아시아 게임에서 보여주는 부산 불자들의 활약은 선수촌내의 불교관 운영과 43개 참가국의 서포터즈로 각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열띤 응원전에서 유감 없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선수촌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교관은 불교 국가 선수들은 물론 한국의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우수·사격선수등 하루 90여명 찾아 부탄·스리랑카선수들 경기전 예불 “아주경기 계기 한국불교 관심 증폭”

다른 종교관이 문을 열지 않는 이른 새벽시간에도 불교관은 한히 불을 밝히고 있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불교관에는 그래서 이른 아침, 경기전 기도를 위해 찾아온 선수들도 눈에 띈다. 부탄과 스리랑카의 선수들이 경기전에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는가 하면, 중국의 우수 선수와 싱가포르의 사격 선수 등 정신 통일이 강조되는 종목의 선수들이 즐겨 찾아 하루 평균 9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매일 불교관을 찾아 상주 법사로 있는 무심스님, 본공스님 등과 대화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들도 생경한 정도 인도네시아 우수 선수인 드위(16) 선수는 “언제든 와서 참선도 할 수 있고, 스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줘 경기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외국인을 위한 선강좌를 하루 한번씩 열며 영어 통역을 맡고 있는 무심스님은 “포교한다는 생각보다는 참선을 통해 경기전 부담을 덜어주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관의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이슬람이나 타종교 국가 선수들도 방문, 전신이나 한국 불화를 감상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동명불원 신도들의 다도시연과 불



◇부산영주암 조실 정관스님과 신도들이 2일 북한 여자 축구 경기가 열린 구덕 경기장에서 '통일조국'을 외치며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화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됐던 불교관은 5일, 삼광사 주최로 부산아시아게임 성공기회와 36억 아시아인의 화합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열어 한국 불교의식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각종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의 활동은 부산 시청 시

발길 줄잇는 AG선수촌 불교관

민 서포터즈 담당자들이 놀라움을 표할 정도로 가장 두드러진다. 2일 북한과 일본 여자 축구 경기 북한 서포터즈로 나선 영주암 신도들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경기장을 찾은 열성을 보였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통일조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쳤

다. 응원에 나선 영주암 조실 정관스님은 “너와 나의 대립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피도 역사도 문화도 같은 한민족인 북한을 응원하는 마음은 자동적”이라며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을 응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아시아 게임을 계기로 부산 불교계에는 새로운 신행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부산 아시아 게임에서 보여준 불자들의 주인의식이 불교 내부의 활력소가 되어 불교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영천·경산에 불교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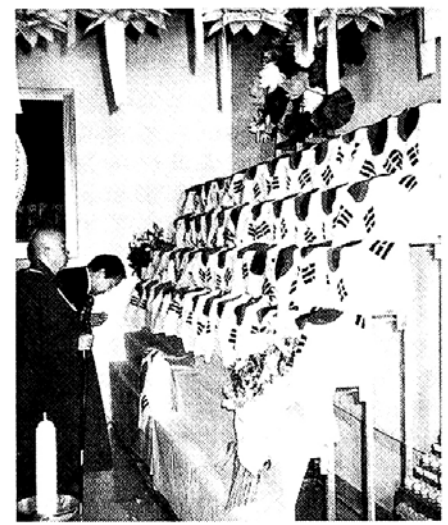
은해사·안흥사 1·2일 개강

영천과 경산에 불교교양대학이 잇달아 개설돼 배움에 목마른 지역 불자들이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 2일 은해사(주지 법타스님)는 영천, 진량, 자인, 군위 등지의 불자들을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 교육에 들어갔다. 은해사 보화루에서 1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첫 강좌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무국장 장적스님의 강의가 있었으며, 2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두차례 열린다. 이에 앞서 1일 경산 안흥사에서도 8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화요일 열리는 불교교양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박원구 기자 사명대사 열반 추모법회 사명대사 열반 제392주기 추모대법회가 2일 부산시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앞에서 봉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는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영산재, 육법공양, 차공양의 순서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 이어 추모법회가 이어졌다. 성오스님은 “사명대사의 대교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이승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태평양전쟁중 희생 무연고 한국인

위패·유골 100기 환국 평화통일사에



◇한국인 희생자 무연고 유골 48기가 9월 28일 평화통일사 법당에 모셔졌다

일본 세계평화사 지장사 등 24개 사찰에서 봉안돼 있는 한국인 희생자 무연고 위패 52기와 유골 48기 등 총 100기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파주 평화통일사(주지 일신)는 9월 28일 30여명의 스님과 불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 위패 및 유골 봉안식, 위령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일신스님은 법문을 통해 “본교향으로 돌아왔으니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인생은 무상하니 집착을 끊고 극락왕생하시라”고 영가들을 위로했다. 이번에 봉안된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위패와 유골은 (사)태평양전쟁 희생자 무연고영령봉환본부(본부장 장황국)와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회장 이백일)가 준비하고 평화통일사가 후원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세계평화사 주지 대야호스님과 협의, 일본내 24개 사찰에 봉안된 위패와 화장된 뒤 시멘트 골조에 묻혀있는 유골들을 발굴하여 40만기가 달하는 무연고 희생자 유골과 위패를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캐나다 원주민 치힐리스밴드가 미항사 법당앞에서 자연과 문화, 인간의 연대를 표현할 연희의식을 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찰에서 상 품회되지 않은 한국의 참모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인디언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차려

가원주민 미항사서 불교체험

다도·저녁예불참가·치힐리스 공연

입은 캐나다 원주민 8명으로 구성된 치힐리스 밴드가 1일 팔골마을에 위치한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를 찾았다. 9월 29일 새만금 갯벌 생명살리기 영성나누기 춤사위 행사를 마치고 미항사를 찾은 치힐리스 밴드 원주민들은 모두 캐나다 밴쿠버에서 뉴욕으로 120여km 떨어진 허드슨강 유역에 살고 있으며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 환경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 초청으로 미항사를 찾은 캐나다 원주민들은 다도 및 저녁예불 등 불교문화를 체험한 뒤 “자연과 문화, 인간의 연대에 관한 치힐리스의 노래”를 의식과 함께 불렀다. 금강스님은 “미항사에 전해오는 진법공교(승병들이 진을 짜고 시기를 높이는 데 쓰였던 풍물놀이)와 치힐리스 원주민의 연회를 한자리에서 시연하며 새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구절초 꽃축제 열어

영평사, 13일까지

영평사(주지 공원)는 구절초가 만개하는 때에 맞춰 5일부터 13일까지 ‘구절초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일명 선묘초라 불리는 구절초는 부인병이나 불임병에도 효험이 있어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활용되는 약초로 소박하고 아름다운 꽃은 도자기, 가구기 등 일상생활의 소품에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관소리, 창 등의 민속공연과 화전 부치기, 새기 꼬기 대회, 사진·도자기·서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041) 857-1854. 김철우 기자

전북 첫 불교전문강원 설립

고창 선운사, 내년 3월말 정식 개강

고창 선운사가 전라북도 최초로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한다. 선운사(주지 법현)는 10일 강원 현판식을 갖고 사미 예비반을 꾸려 올 가을 동안 운영하는 한편, 선운사 불교전문강원을 내년 3월 말경 정식 개강하기로 했다. 현재 사미 예비반은 10명 선에서 구성되며 학습과목은 석가어래행적송을 포함한 능엄·원각·금강경 등이다. 선운사는 올 가을을 내년 본격적인 강원 운영을 위

한 준비 단계로 삼아 강원 체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초대 강주로는 법장스님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 선운사 주지 법현스님은 “박한영 스님등을 배출하여 근대 불교 교회의 중심지였던 역사성을 살리겠다”며 “한문 독해 능력 습득을 통한 불경 원전 교육과 현대적 감각 배양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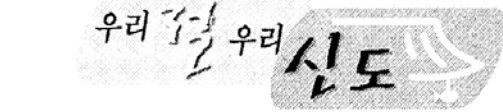
어린이한문서당 열어

수원포교당, 12일 개강

수원포교당에 어린이 한문서당이 문을 연다. 수원포교당 여래 살림 생영은 3개월 과정의 여래 어린이 학교 ‘한문서당’을 12일 개강한다.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천자문과 함께 ‘삼귀의’, ‘반야심경’ 등의 기초교리와 불자예절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열리며, 수강료는 3개월에 2만 5천 원이다. (031)255-2693 권형진 기자

80세에도 청소·설거지 도맡아

“불자로서 청정도량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이 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봉사할 생각입니다” 봉은사 공양간에 기른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설거지 봉사를 도맡아 하는 밀행(密行)의 실천자 조용호 거사를 만날 수 있다. 조용호 거사는 3월 8시에 어김없이 임구정동 집을 나섰다. 걸어서 45분 거리의 봉은사에 도착하면 법당을 찾아 부처님께 참배하고, 108배를 올린다. 이어 아미타전 미륵전에 참배한 뒤 공양간으로 향한다. 공양간인 보우당에 들어서면 은수과 냉수를 적절히 맞춰 설거지통에 물을 받는 것이다. 그런 다음 밀가루와 세제를 반씩 섞어놓는 작업까지 마치고 식기와 수저 젓가락을 정리하여 펼쳐놓아 사람들이 편하게 공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히 11시 30분이 되면 공양하려는 불자들이 발 디딤틈 없이 분된다. 손뼉 틀 없이 이어지는 설거지 금새 조거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힌다. 설거지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조 거사는 수세미를 씻어 가지런히 햇빛에 말린 뒤 공양간 바닥 청소까지 마치고 잠잠을 벗었다. 설거지 후 경내 청소를 한 뒤 법당에 올라가 참선정진을 1~2시간 하면 오후 4시, 조 거사가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다. ‘설거지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는 조 거사는 ‘절 일하는 것은 마음이 저절로 흘러서 한다. 일을 할 수 있



서울 봉은사 조용호 거사



◇조용호거사(맨 오른쪽)가 3일 봉은사 공양간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다.

“일하는 것도 부처님가피” 곳은일 찾아 솔선

매년 3천배 철야정진·100일 안거도 거든

는 것도 부처님가피”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부터 신심 돈독한 불자였던 보살님이 ‘절에 함께 나가자’고 권해도 ‘내 마음이 중요할 뿐’이라며 들은 채만 했다. 그러다 1996년 상처하고 딸네 집에 산다. ‘생전에 그렇게 어머니가 아버지

에게 원했던 만큼 이제라도 절에 가서 함께 공부하자’는 의동담 조연숙씨의 권유로 1997년 2월 봉은불교대학 21기로 입학하면서 봉은사와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교리의 뜻을 몰라 고전했지만 수료할 때쯤 되니 “불교는

추천의말

원혜스님 봉은사 주지



무 재 칠시(無財七施)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들이지 않고 그저 평안한 얼굴 하나만으로, 언어로,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우물을 가꾸어 목을 축이게 해주고, 정자를 만들어 쉬어가게 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봉은사 모범신도인 조용호 거사는 남이 알지 못하게 신도들이 먹은 식기를 세척해주고, 법당을 청소하며, 휴게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곤 합니다. 그야말로 ‘밀행의 실천자’라 할 수 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열심히 정진하고 봉사하는 조용호 거사는 분명 봉은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김원우 기자

외국인위한 남산선원

무심스님 부산에 개원

외국인들에게 한국선의 세계를 알리는 남산 선원(주지 무심)이 11월 3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문을 연다. 남산선원의 선원장은 한국선을 해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온 송산스님의 미국인 제자 무심스님. 스님은 18년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선을 지도해 온 경험을 살려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매주 1회씩의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법회와 참선 강좌를 열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한국 불교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포부다. 특히 스님은 일대일 참선지도에 중점을 두고 언어나 문화를 초월한 본래 성품 지리를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울릉도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에서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제2회 회당문화축제

울릉도 공원에서 이틀간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울릉도 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2회 회당문화축제를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울릉도 동동항 소공원에서 개최했다. 김철우 기자